

고흥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고흥몰’ 경쟁력 확보

누적 회원 수 5만명 돌파...11월에만 2600명 이상 가입
차별화 콘텐츠·쇼핑 경험 제공...“전국 소비자에 각인”

고흥군의 온라인 농수축특산물 쇼핑몰 ‘고흥몰’이 누적 회원 수 5만명을 돌파하며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30일 고흥군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2600명이 넘는 신규회원을 유치하며 누적 회원 5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고흥몰 개설 이후 월 기준 최고 기록으로, 최근 개최된 고흥유자축제와

2025 서울카페쇼 홍보관 운영 효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1월 열린 고흥유자축제는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장을 찾은 방문객과 온라인 소비자들에게 고흥 유자와 농수산물의 매력을 널리 알린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축제 기간 고흥몰은 온라인에서 진행된

‘유자에(愛) 빠지다’ 특가전과 함께, 축제장 내 트롤리버스 홍보관을 운영해 현장 예약주문 점수와 다양한 체험·이벤트를 통해 자연스러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었다.

이어 2025 서울카페쇼에 마련된 고흥군 홍보관은 수도권 소비자에게 고흥 유자·키위·수산물 가공품의 우수성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유자청·과일 농축액·지역 특산 디저트 원물 등 카페 산업과 연계된 제품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요리비법 프로젝트 수상작들의 시식 이벤트와 결합하면

서 회원가입 전환율도 크게 높아졌다.

이 같은 온오프라인 연계 전략의 효과로 고흥몰은 11월 한 달 동안 2600명 이상의 신규회원을 확보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유자축제와 서울카페쇼를 통해 고흥몰이 전국 소비자에게 확실하게 각인된 것 같다”며 “높아진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 농가 소득을 높이고, 고흥 물산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몰은 고흥군이 직영하는 온라인 농수축특산물 쇼핑몰로, 산지직송 농수



산물·유자가공품·김치·건강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정기구독 서비스, 체험형 마케팅, 브랜드 콜라보 프로젝트 등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나주, 골목형 상점가 대폭 확대 추진

공실 상가 해소·지역 소비 촉진 기대

나주시가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와 골목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대폭 확대 지정’에 나선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일정 구역 내 상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하면 상권 환경개선, 공동 마케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나주에는 총 6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돼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사용 증가와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기존 상점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아 동시서 징수 등 요건 충족이 쉽지 않아 상인 의지가 있더라도 실제 지정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빗가람동과 원도심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지정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빗가람동의 경우 공공기관 복지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지속돼 왔으나 가맹점 부족으로 인한 이용 불편이 컸던 지역이다.

이에 시는 상인 참여 문턱을 낮추는 행정 지원 체계와 ‘골목형 상점가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공실 상가 해소, 온누리상품권 사용 활성화, 지역 소비 촉진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시는 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동시서 작성 지원, 상점가 홍보 등 지정 절차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일정 구역에서 임시 집행부가 구성되면 ‘골목형상점가 서포터즈’를 투입해 동시서 작성부터 행정 절차까지 현장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 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확대를 통해 가맹점 확충, 경제 편익성 향상, 지역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는 상권 활성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확대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공실 문제를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행정과 상인이 함께 협력해 상권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신규 공무원과 함께하는 ‘마주온(溫)데이’ 담양군은 최근 2025년도 신규 공무원 26명을 대상으로 군수와 함께하는 열린 대화 프로그램 ‘마주온(溫)데이’를 운영했다. ‘마주온데이’는 신규 직원들이 공식 생활 초기에 겪는 고민을 나누고 군정 방향을 듣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사진제공=담양군

군민이 직접 곡성 우수시책 선정한다

10일까지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 추진

곡성군은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다양한 정책 중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올해의 우수시책에 대한 군민 선호도 조사를 추진한다.

군은 부서에서 제출한 32건의 후보 시책을 대상으로 주민 편의 증진, 효과성, 창의성과 전문성, 지속적 행정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1차 내·외부 심사를 거쳐 10대 우수 시책(사업)을 선정했다.

이후 군민이 직접 참여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며, 군민들의 공감을 많이 얻은 시책은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의 10대 우수시책은 ‘군민 밀착 양방향 소통행정 유난히 좋은날, 바로폰 운영’, ‘소아과 상시진료 운영 개시’, ‘농촌 유학마을 조성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청년과 기업이 찾아오는 곡성형

위케이션 운영’, ‘농가 인력난을 책임지는 든든한 지원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미래농업의 희망 민원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축제장, 야시장, 읍내상권을 잇는 지역 상권 활력 프로젝트’, ‘에방-대비-대음 체계로 산불제로(zero)’, ‘조직화면 블루베리, 조기재배, 장기출하 체계 정착’, ‘가까운 곳에서 누리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권역별 건강증진센터’ 등이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12월 1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조사는 군 홈페이지 내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11개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우수시책 조사판에서 스티커 투표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모든 군민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하고, 참여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최종 결과는 집계 후 군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선정된 시책은 향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조상래 군수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향후 선정된 우수 시책들은 더욱 확대 운영해 군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군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제조업 중심’ 영광, 묘량농공단지 분양

기반기설·물류 접근성·입지 등 경쟁력 갖춰

영광군은 지역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업 투자 촉진에 위해 조성한 묘량농공단지를 분양한다.

이번 분양은 식품, 금속, 전기 등 제조업 중심의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한다.

묘량농공단지에는 묘량면 신천리, 영양리일원에 조성된 농공단지로 제조업 기업을 입주할 수 있는 기반기설, 물류 접근성, 입지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갖춘 것이 특징이다.

또 조성원가는 평당 54만5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수준이며, 기업규모와 투자 계획에 따라 여러 형태의 분양 면적을 선택할 수 있어 유연한 입지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묘량농공단지는 제



조업 성장을 위해 최적화된 환경을 갖춘 곳으로, 기업이 빠르게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며 “우수 제조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양 대상과 분양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경제과(061-350-546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보성파크골프장, 내일부터 시범운영

군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건강·소통·관광 기능 기대

보성군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조성한 18홀 규모 ‘보성파크골프장’을 2일부터 시범운영한다.

이번 운영을 통해 시설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점검한 뒤, 2026년 7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보완·정비 작업이 병행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휴장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8시~오후 12시, 오후 1~5시 운영되며, 1일 30팀(120명) 한도로 누리집(https://www.boseong.go.kr/parkgolf)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로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범 운영을 앞둔 ‘보성파크골프장’은 총 부지 3만1515㎡에 18홀 규모로 조성된 생활체육 경기장이다.

인근에는 차밭과 한국자문화공원이 위치해 자연 조망과 힐링 환경을 동시에 갖췄으며, 체육·관광·문화가 결합된 복합 체험 공간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파크골프장이 군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돕고, 세대 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체육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파크골프장 준공을 기념해 최근 보성군파크골프협회 주최로 ‘2025 보성파크골프 축제 한마당’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15개 클럽·선수 등 300여명이 참석해 동호인 교류와 화합의 장을 이뤘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식료품점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외서 공감커뮤니티센터에서 ‘가가호호 마중장터 발대식’을 열었다.

순천, 농촌 복지 서비스 확대 ‘눈길’

가가호호 마중장터 발대...판매·주문배달 제공

순천시가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 다.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식료품점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외서 공감커뮤니티센터에서 ‘가가호호 마중장터 발대식’을 열었다.

가가호호 마중장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 이동장터 사업으로, 순천농협이 이동 판매 차량을 활용해 주 5일 동안 송광·외서면 내 상점이 없는 마을을 순회하며 생필품과 신선식품을 판매하고, 주문 배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시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 접근성이 낮은 마을과 고령가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순천농협 관계자는 “가가호호 마중장터가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마을에 꼭 필요한 생활 서비스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마중장터 운영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농업·농촌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가호호 마중장터는 송광·외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생필품 구매 접근성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